

개정된 자동차 보험 요율

자동차보험료 자유화와 불량운전자에 대한 보험료 차별화 조치로 94년 8월 1일부터 자동차 보험 요율 체계가 대폭 바뀌어 시행되고 있다.

사고를 내지 않은 모범적인 운전자와 사고를 많이 낸 불량 운전자의 보험료 차이가 전보다 훨씬 커지게 된 것이다.

또 같은 운전자라 하더라도 보험사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어, 좀더 싼 보험료로 좀더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험사를 선택할 수 있는 시대를 맞게 됐다.

보험사마다 요율 차이

특히, 사고를 많이 낸 가입자일수록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려면 여러 보험사의 문을 두드려 볼 필요가 있다.

불량 운전자에 대한 보험료 차별화 조치의 핵심은 최근 3년 이내에 사고를 한번이라도 내면 보험료를 최고 50%까지 더 내는 특별할증 대상에 포함된다는 사실이다. 지난 4월 1단계 보험료 자유화 조치 내용을 이번에 훨씬 강화한 것이다.

그러나 다른 사람의 차량이나 재산에 준 피해액이 50만원 이하로 벌점이 0.5점인 대물사고는 보

험료 할증대상에서 제외된다.

또 피해액이 50만원이 넘거나 사람에게 경상을 입혀 벌점이 1점인 사고를 냈더라도 평가기간인 3년중 최근 1년간만 무사고로 운전했으면 역시 할증대상이 아니다 (사고 기록별 벌점은 <표1>참조).

그밖에 사망 또는 중상사고와 교통사고특례법상 10대 중대법규 위반사고, 뺑소니 또는 음주운전 사고를 낸 운전자 등 현행 특별할증 대상은 그대로 변함이 없다.

중대사고 50% 특별할증

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해 있는 차량은 약 5백50만대로 이중 한 번이라도 사고경력이 있는 차량은 약 20%인 1백10여만대에 이르고 있다.

이 가운데 경미한 사고자를 제외한 약 65만대 정도가 이번 조치로 보험료를 추가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.

현재 각 손해보험사들은 사고 유형과 원인에 따라 특별할증요율을 10~50%까지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세부 지침을 만들어 놓고 있으나 개별 가입자 외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가입자로서는 일일이 보험사를 찾아가 내야 할 보험료를 구체적으로 비교해 봐야

<표1> 사고기록 벌점제

사고 유형별			벌점	
인적 사고	대인 사고	사망사고	4	
		중상1급	4	
		2~7급	3	
		경상 8~12급	2	
		13~14급		
	자손사고		1	
물적사고			• 50만원 초과 • 50만원 이하	1 0.5

사고 원인별	벌점
• 주취한계 초과 및 약물운전	3
• 뺑소니	3
•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	3
• 중앙선침범, 과속, 신호위반, 음주 등 교통사고특례법상 10대 중대법규 위반	1

한다.

대부분의 보험사들은 사망과 같은 중대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해서는 최대 특별할증요율인 50%를 적용하고 가벼운 사고는 최저요율을 적용할 방침이다.

보험사의 인수규정에 따르면 앞으로 보험료를 적게 내는 운전자와 많이 내는 운전자 사이의 보험료 차이는 최고 220%까지 날 수 있다.

무사고 60%까지 할인

최악의 경우 100%의 기본할증에다 50%의 특별할증이 더해지

고 다시 보험사의 재량에 의해 10%가 더 붙어 요율이 1백60%에 이르게 된다.

반면, 무사고운전자는 최고 60%까지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기 때문에 차이는 2백20%가 되는 것이다.

그대신 그동안 잦은 사고를 이유로 보험사들이 인수를 기피해 보험가입이 어려웠던 이른바 불량차량들도 앞으로는 마음껏 보험에 들 수 있게 됐다.

회사별로 할증률을 살펴보면 삼성화재는 벌점이 1점인 경우 무사고 기간에 따라 20%에서 30%의 할증률을 적용한다. 1.5점일 경우는 35%의 할증을 적용하며, 2점 이상인 사고자에 대해서는 40~50%의 할증률을 부과한다.

한국자동차보험은 벌점이 1점인 경우는 20%, 벌점 1.5~2.5점인 경우는 25~35%, 벌점 3점 이상인 경우는 40~50%를 적용키로 했다.

현대해상은 적용요율 40%의 최우량 가입자에 대해 특별한 혜택을 부여, 벌점 1점과 1.5점의 가입자에 대해 10%의 할증만을 붙인다. 그러나 벌점 2점은 30% 이상, 2.5점은 40% 이상을 부과, 각 벌점에 대해 최소 기준만 마련해 최고 50%까지 적용할 여지를 만들어 놓았다.

럭키화재는 0.5점마다 5%의 할증을 더하는 방법을 채택해 2.5점 이상의 사고자에 대해서는 50%의 할증률을 적용토록 했다.

동양화재는 특별할증률 적용 기준을 가장 세밀하게 작성했다. 사고점수 0.5점을 기준으로 30%에서 50%까지 5%단위로 할증률을

●최근 3년 이내에 한번이라도 사고를 났다면 보험료를 최고 50%까지 더 내는 특별할증 대상에 포함된다.

그러나 피해액이 50만원 이하의 대물사고는 벌점이 0.5점이 되어 할증 대상에서 제외된다.

차등 적용하고 표준요율 55%이하인 계약에 대해서는 10%를 차감해 준다.

쌍용화재는 우량가입자에 대한 배려를 가장 많이해 동일한 사고점수라도 표준요율에 따라 10%씩 할증률을 차이나게 했다.

또 표준요율이 1백%를 넘는 불량가입자의 경우는 1점 벌점이며 대개 30%, 1.5점인 경우 35%, 2점의 벌점인 경우 40%의 할증률을 적용받는다.

이처럼 손보사마다 조금씩 할증률 적용의 차이가 있으므로 보험계약자는 여러 손보사의 할증내역을 비교 분석, 자기에게 가장 유리한 보험사에 보험계약을 맺는 생활의 지혜가 필요하다. (☞)

〈표 2〉 ◇주요 회사별 특별할증 요율 체계

회사	특별할증 범위
공통	중대법규 위반자, 뺑소니 음주운전 사고자, 사망 또는 대인사고 7급 이상 등 : 50%
삼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벌점1점 표준요율60%이하 : 20% " 60~65% : 25% " 70%이상 : 30% • 벌점1.5점 : 35% • " 2점 이상 : 40~50%

현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벌점1점 : 10~30% • " 1.5점 : 10~40% • " 2점 : 30~45% • " 2.5점이상 : 40~50%
자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벌점1점 : 20% • " 1.5~2.5점 : 25~35% • " 3점이상 : 40~50%
럭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벌점1점 : 35% • " 1.5점 : 40% • " 2점 45% • " 2.5점 이상 : 50%
동양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벌점1점 : 30% • " 1.5점 : 35% • " 2점 : 40% • " 2.5점 : 45% • " 3점 이상 : 50% ※ 표준요율55% 이하 : 10%차감 " 60~65% : 5%차감
제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벌점1점 이상 : 30~50% ※ 표준요율55% 이하 : 10%차감 " 60~65% : 5%차감
쌍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벌점1점 : 30% • " 1.5점 : 35% • " 2점 : 40% • " 2.5점 : 45% • " 3점 이상 : 50% ※ 표준요율55% 이하 : 10%차감 " 60~65% : 5%차감
대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벌점1점 : 30% • " 1.5점 : 35% • " 2점 : 40% • " 2.5점 : 45% • " 3점 이상 : 50% • ※ 표준적용률 70%미만 : 5%차감
해동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벌점1점 : 30% 표준적용률 70%미만 : 5%차감 • " 1.5점 이상 : 40% 표준적용률 60%미만 : 10%차감